

입원노인 주 부양자의 건강상태, 소진감 및 부양부담감에 관한 연구

김 귀 분* · 성 정 민** · 석 소 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과학화, 정보화, 의학 발달 및 경제성장 등으로 생활환경이 양호해지면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령화 사회를 초래하게 되었고, 준비 없이 노령화 사회를 맞이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National Statistical Office(통계청, 2007)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계속 증가하여 2005년 노인인구는 9.1%이며, 2018년에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또한 평균수명은 2005년에는 남자 75.1세, 여자 81.9세이며, 2020년에는 남자 77.5세, 여자 84.1세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이러한 증가 추세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 노인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매 3년마다 시행하는 병원 입원환자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구성비는 2002년 17.8%에서 2005년 20.4%로 증가하였다(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5). 노인인구의 변화는 건강한 생활습관에 의해 유도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것으로, 이들이 장수하는 만큼 건강하게 삶의

질이 향상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통과 건강문제를 가진 채 장수한다(Park, 2006). 특히 장기간에 걸친 질병은 노인자신에게 심리적, 경제적인 면 모두에서 부담이 되고, 신체적, 정신적 저하를 가져다주는 것이 특징이며, 노인 개인은 물론 가족구성원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과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가족의 역할가치, 기능 및 가족의 건강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정상적인 삶의 영위가 불가능하며 사회적 부담 역시 매우 크다(Amirkhanian & Wolf, 2003; Lee, 2006). Brody(1985)는 부모를 돌보는 것은 개인과 가족들에게 규범적이기는 하지만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경험이 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은 장래 계획이나 사생활, 직업, 사회·경제적 생활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기대로 갈등을 겪는다고 하였다(Park, 2006; Rhu & Kim, 2006). 노인을 모시고 있는 부양자 중 약 80%가 돌봄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Jeong, 1998), 약 40%가 심각한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Lee & Song, 2000). Oh(2008)는 가족환자를 간호하는 중에 20%가 아프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으며, Amirkhanian과 Wolf(2003)는 부양부담감으로 인해 부양자의 생활만족도가 떨어지고, 우울을 증가시켜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부양자들의 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의 진전 및 소진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양부담감에 대한 조기관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책임간호사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조교수(교신저자 E-mail: 5977sok@khu.ac.kr)

투고일: 2008년 4월 15일 심사완료일: 2008년 6월 22일

리가 매우 중요하다(Rhu & Kim, 2006). 소진감(Burnout)이란 스트레스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업무 스트레스 반응의 한 형태로서 부정적인 자아개념 및 태도 형성을 의미하는데(Pines & Kanner, 1982) 신체적, 정서적 불 건강 상태는 물론 본인이 처해 있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증상으로 가족 간의 불협화음을 초래시킬 수 있게 되고, 이로써 부양부담감은 더욱 고조될 수 있다. 또한 소진감이 심화될수록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감은 더욱 커져서 노인 주부양자 자신들의 삶 자체를 위협하기도 한다(Lee, 2006).

현대사회로 오면서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로, 가족 내 질환을 가진 노인이 있는 경우 가족은 수발기간 동안 스트레스 상황에 의해 가족기능을 더욱 심하게 저해할 수도 있으며 가족들이 노인환자를 수발하는 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Joo, 2003). 노인이 입원하게 되면 가족, 친지, 친구, 이웃 등의 지지원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정서적, 신체적 지지체계가 감소되어 인지능력의 저하 및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기 쉬워(Oh, 2008), 가족의 활동이 제한되고 의존적이 되면서 가족에게는 부양의 책임이 가중된다. 입원 노인환자의 부양은 단시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회복 시까지 끊임 없는 관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발활동이 필요하다. 즉 가족이 환자를 장기간 돌보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우울, 만성피로, 소진감, 스트레스, 긴장 및 부담감 등을 들 수 있다(Amirkhanian & Wolf, 2003; Kim & Lee, 1999). 특히 소진감과 부양 부담감은 노인환자의 입원기간, 질병양상 및 환자의 기동성 여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Lee, 2006). Seo와 Oh(1993)는 간호의 궁극적 목적이 대상자와 가족의 건강문제를 해결해 주어 하나의 통합된 단위로서 건강한 삶을 공동으로 영위하도록 돕는데 있으므로, 환자간호에 초점을 두면서도 환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환자 가족의 당면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돕고 안녕을 증진시켜 주며 나아가 환자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활동이 원만하게 될 수 있는 통합된 간호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입원환자를 위해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에게는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고, 입원노인을 돌보는 가족원이 가지는 다양한 역할과 부담감은 가족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Amirkhanian & Wolf, 2003; Oh, 2008). 즉 노인의 주 부양자 입장이 되면, 노인을 돌보아야 하

는 육체적 노동에 직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나 보호자로서의 계속적인 이종의 역할을 포함하는 책임감을 떠맡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양상변화, 다른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축소, 휴식부족, 재정적 손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어지게 된다(Yang, 2000).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가족원에게 부담감과 만성피로나 소진감(Oh, 2008)이 나타나게 된다. 이상으로 노인을 돌보아야 하는 주 부양자의 다양한 문제점, 즉 건강상태, 소진감 및 부양부담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감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Lee & Lee, 2000; Lee, 2006), 이 세 가지 개념을 비교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노인의 주 부양자의 다양한 문제점중에서 이 세가지 개념은 중요도와 빈도수가 높은 개념으로 특히 입원노인의 주 부양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비교 연구되어야 할 개념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유병노인이 입원할 경우 입원노인을 주로 돌보는 가족원이 느끼는 건강상태, 소진감, 부양부담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건강상태, 소진감, 부양부담감에 대한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입원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내용을 제공하고 부양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입원노인을 주로 돌보는 가족원이 느끼는 건강상태, 소진감 및 부양부담감 정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입원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내용을 제공하고, 부양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입원노인 주 부양자의 건강상태, 소진감 및 부양부담감 정도를 파악한다.
- 2) 입원노인 주 부양자의 건강상태, 소진감 및 부양부담감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3) 입원노인 주 부양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 소진감 및 부양부담감과의 차이를 비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입원노인 주 부양자의 건강상태, 소진감 및 부양부담감 정도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시내 K대학 부속병원과 E대학 부속 병원에 1-2달간 뇌졸중으로 입원하고 있는 부분적으로 거동이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을 돌보고 있는 주 부양자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232명이었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각 기관의 기관장과 입원병동의 수간호사 및 간호사들의 도움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 250부를 수거하였으나 무응답 및 자료처리에 부적절한 18부를 제외한 총 232부가 본 연구를 위해서 사용되었다.

3. 연구 도구

1) 건강상태 측정도구

건강상태의 측정은 Cornell의학지수(CMI)간이형을 사용하였다. 본래의 Cornell의학지수는 1945년 Cornell 대학의 Brodman, Weider, Mittelman, Wechsler와 Wolff(1945)에 의해 고안된 설문식 건강조사표로써 19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5년 Nam이 한국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간이형을 작성하였으며 이는 신체적 호소 37 문항, 정신적 호소 22문항으로써 총 5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Nam(1965)이 한국인에게 맞게 수정·보완한 CMI 간이 건강조사표 35문항(신체적, 정신적 호소 문항들) 중에서, 문항 요인 분석 후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된 4문항을 제외하고 31문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31문항 모두 Likert 4점 척도로 점수 범위는 최저 31점에서 최고 12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쁜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Nam(196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0$ 이었다.

2) 소진감 측정도구

입원노인 주 부양자의 소진 경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Pines, Aronson과 Kafry(1981)가 개발하고 Pik(1983)이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3개영역 총 20문항(신체적 탈진에 6

문항, 정서적 탈진에 7문항, 정신적 탈진에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각의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없다" 1점, "가끔" 2점, "보통" 3점, "자주" 4점, "항상" 5점)로, 본 도구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이었다. 긍정적인 문항은 역환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Pik(198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7$ 이었다.

3) 부양부담감 측정도구

부양부담감 측정은 Jeong(1998)이 수정·보완하여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다. 부담감의 측정을 위해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 5가지 변인 즉 정서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신체적 측면, 부양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있고, 정서적 측면 4문항, 경제적 측면 2문항, 사회적 측면 5문항, 신체적 측면 3문항, 부양에 대한 태도 5문항,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각의 문항은 그 내용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의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본 도구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최저 19점에서 최고 95점이었다. 부양에 대한 태도 5문항은 역환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부담감이 큰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Jeong(199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5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8$ 이었다.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서울시에 소재한 2개 대학부속 병원에서 2007년 3월 1일부터 2007년 4월 10일까지 실시되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1차 해당병원의 자료수집 허락을 받은 후, 본 연구에 참여를 허락한 입원노인 환자의 주 부양자를 임의 표출하여 자가 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2) 건강상태, 부양부담감 및 소진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3) 대상자의 건강상태, 부양부담감 및 소진감 사이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 소진감 및 부양부담감의 차이 검정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대상자는 서울소재 2개 병원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으므로 전 모집단에 확대해석하는 것은 어렵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인 입원노인환자의 주 부양자 232명에 대한 특성으로 연구 대상자의 성별, 연령, 교육, 직업, 종교,

월수입, 입원노인환자와 주 부양자와의 관계, 동거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고,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54명(23.3%), 여자가 178명(76.7%)으로 여자가 월등히 많았고 연령분포는 39세 이하가 79명(34.1%)으로 가장 많았고 40~49세 이하가 68명(29.3%), 60세 이상이 45명(19.4%), 50~59세 이하가 40명(17.2%)이었다. 교육 정도는 대졸이상이 106명(45.7%)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고 직업은 전업주부가 97명(41.7%)이었는데 여기에는 무직이 포함되어 있었다. 종교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133명(57.3%), 없는 경우가 99명(42.7%)이었고 월수입은 가족원의 총수입을 뜻하는 것으로 400만원 이상이 75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입원노인환자와 주 부양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89명(38.4%), 며느리가 88명(37.9%)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배우자는 42명(18.1%)이었다. 연구대상자가 입원노인환자와 같이 지내온 동거기간은 10년 이상이 118명(50.8%)으로 절반을 차지하였고, 5년 미만이 78명(33.7%), 5~10년이 36명(15.5%)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32)

Characteristics	Category	n	%
Gender	Male	54	23.3
	Female	178	76.7
Age(year)	39	79	34.1
	40~49	68	29.3
	50~59	40	17.2
	60 above	45	19.4
Education	Middle school below	34	14.7
	High school	92	39.7
	College above	106	45.7
Occupation	House keeper	97	41.7
	Company	51	22.0
	Professional	50	21.6
	Business	34	14.7
Religion	Yes	133	57.3
	No	99	42.7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below	59	25.4
	200~300 below	57	24.6
	300~400 below	41	17.7
Relation	400 above	75	32.3
	Spouse	42	18.1
	Child	89	38.4
	Daughter in law	88	37.9
Duration of living together (year)	Grandchild	9	3.9
	Relative	4	1.7
	5 below	78	33.7
5~10 below	36	15.5	
	10 above	118	50.8

2. 연구 대상자의 건강상태, 소진감 및 부양부담감 정도

연구 대상자의 건강상태, 소진감 및 부양부담감 정도를 확인한 결과<Table 2>, 건강상태는 평균 1.69로 대체로 좋은 편이며, 소진감은 평균 2.66, 부양부담감은 평균 2.71로 약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Table 2> Mean of Health Status, Burnout, and Burden (N=232)

	Mean	SD
Health status	1.69	.79
Burnout	2.66	1.09
Burden	2.71	1.04

3. 연구 대상자의 건강상태, 소진감 및 부양부담감과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건강상태, 부양부담감 및 소진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Table 3>, 건강상태와 소진감 간에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420$), 건강상태와 부양부담감 간에도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322$), 소진감과 부양

부담감 간에도 역시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656$).

<Table 3> Relationship Among Health Status, Burnout, and Burden (N=232)

	Health status	Burnout	Burden
Health status	1		
Burnout	.420**	1	
Burden	.322**	.656**	1

** P<.001

4.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 소진감 및 부양부담감 차이 검정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 소진감 및 부양부담감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Table 4), 건강상태는 성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 = -2.22$,

$p = .03$), 관계에서는 사후검증결과 손자녀와 며느리의 건강상태가 다른 관계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 = 4.25$, $p = .00$).

소진감에 대한 차이 검정은 성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소진감을 경험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 = -3.68$, $p = .00$), 관계에서는 사후검증결과 며느리, 손자녀 및 배우자가 자녀와 친척보다 소진감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 = 7.43$, $p = .00$).

부양부담감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부양부담감을 더 경험하게 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 = -2.84$, $p = .01$), 교육정도에서는 사후검증결과 고졸이하가 대졸이상보다 더 부양부담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 = 4.95$, $p = .01$), 관계에서도 며느리가 다른 관계보다 부양부담감을 더 갖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

<Table 4> Differences of Health Status, Burnout, and Burde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32)

Characteristics	Category	Health status		P	Burnout		P	Burden		P
		M(SD)	t/F Scheffe		M(SD)	t/F Scheffe		M(SD)	t/F Scheffe	
Gender	Male	48.79(13.59)	-2.22	.03*	43.54(10.51)	-3.68	.00*	44.86(12.00)	-2.84	.01*
	Female	53.55(13.51)			50.43(12.42)			50.16(11.44)		
Age(year)	39	52.92(15.08)	0.51	.67	47.88(13.27)	1.79	.15	47.66(12.46)	0.95	.42
	40~49	53.66(13.45)			50.02(11.92)			48.23(12.63)		
	50~59	50.51(13.80)			45.78(10.13)			51.16(10.46)		
	60 above	51.57(11.11)			51.32(12.67)			50.16(10.15)		
Education	Middle school below	54.71(13.32)	1.24	.29	51.21(13.21)	1.56	.35	51.06(9.13)a	4.95	.01*
	High school	53.31(13.66)			49.15(10.42)			51.29(11.41)a		
	College above	50.97(13.71)			47.75(13.48)			46.27(12.36)b		
Occupation	House keeper	52.89(13.07)	0.04	.99	51.19(12.01)	2.45	.06	90.96(10.81)	1.76	.16
	Company	52.22(15.19)			47.22(12.50)			46.69(13.29)		
	Professional	52.13(14.03)			48.16(13.10)			47.34(11.89)		
	Business	52.56(12.95)			45.24(11.15)			48.73(11.51)		
Religion	Yes	52.50(13.92)	-0.04	.97	49.28(11.36)	0.68	.49	49.27(11.79)	0.47	.64
	No	52.57(12.88)			48.11(13.86)			48.51(11.29)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below	54.48(13.39)	1.55	.20	50.20(10.78)	0.64	.59	51.04(11.10)	1.32	.27
	200~300 below	52.87(12.77)			49.70(11.65)			49.75(12.28)		
	300~400 below	54.15(15.21)			47.05(12.97)			48.63(12.07)		
	400 above	49.70(13.73)			48.28(13.68)			46.94(11.78)		
Relation	Spouse	51.12(11.91)ab	4.25	.00*	50.02(11.56)a	7.43	.00*	49.66(11.16)a	5.02	.00*
	Child	48.99(12.41)a			43.98(10.23)b			45.06(11.97)a		
	Daughter in law	55.68(14.66)b			53.23(13.13)a			52.75(11.34)b		
	Grandchild	62.33(14.45)b			51.11(12.42)a			45.25(8.71)a		
	Relative	46.25(6.80)a			41.50(6.35)b			48.50(5.80)a		
Duration of living together (year)	5 below	52.62(14.57)	0.17	.85	48.43(12.06)	0.08	.92	47.74(11.13)	0.56	.57
	5~10 below	51.17(15.85)			49.37(15.09)			49.06(12.27)		
	10 above	52.67(12.44)			49.01(11.73)			49.64(12.03)		

* P<.05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5.02$, $p<.00$).

IV. 논 의

본 연구는 입원노인을 주로 돌보는 주 부양자의 건강상태, 소진감, 부양부담감의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입원노인을 돌보는 주 부양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입원환자 주 부양자의 건강상태는 대체로 좋은 편이며, 소진감과 부양부담감은 약간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주 부양자의 건강상태와 소진감, 건강상태와 부양부담감, 소진감과 부양부담감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 주 부양자의 성별과 입원노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건강상태와 소진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부양자의 성별, 교육정도, 입원노인의 관계에 따라서 부양부담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노인 주 부양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분포는 총 응답자 232명 중 남성이 54명으로 23.3%, 여성이 178명으로 76.7%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비교해 보면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Jeong(1998)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28.9%, 여성이 71.1%, 치매노인 주 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Park(2006)의 연구에서는 남성 20.2% 여성 79.8%,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의존성 노인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주 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Yang(2000)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29.8% 여성이 69.8%인 것과 비슷한 비율이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주 부양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가족 구조에서 노인의 주 부양자는 여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실제 가족 내에서 노인 부양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배우자, 딸, 며느리 등의 여성이다. 그러므로 여성 부양자에 대한 지원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역할분배로 부양에 참여하는 의식변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연령분포는 39세 이하가 79명(34.1%)으로 가장 많았고, 40~49세 이하가 68명(29.3%) 60세 이상이 45명(19.4%) 50~59세 이하가 40명(17.2%)이었다. 선행연구 결과들과 비교해 보면 Jeong(1998)의 연구에서는 40~49세가 40.1%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가 35.7%로 그 다음이었고, Park(2006)의 연구

에서는 40대가 39.5%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21.9% 30대 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 부양자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41.7%로 가장 많았고, 입원노인과의 관계는 자녀가 38.4%, 며느리가 37.9% 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 부양자로 며느리나 딸의 비율이 비슷함은 우리나라의 경우, 장남이 노부모를 모시는 것이 전통적인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일차적인 부양 역할은 만며느리가 담당하고 있었지만, 요즘은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점점 그 당연성이 희박해지고 상황에 따라서 딸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입원노인 주 부양자의 건강상태의 정도는 평균 1.69(± 0.79)점으로 대체로 좋은 편으로, Joo(2003)의 노인의 의존성과 부양자의 대처자원이 부양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가족 주 부양자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층이 주로 30~40대로, 아직은 건강상태에 큰 무리가 없는 연령층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입원노인 주 부양자의 소진감 정도는 평균 2.66(± 1.09)점으로 약간 높은 편이었다. 이는 입원노인을 돌보는 주 부양자 층이 며느리, 딸, 그리고 부인 등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어, 과중한 역할 부담으로 남성보다 신체적이나 심리적으로 더 스트레스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소진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입원노인 주 부양자의 건강상태는 평균 1.69로 대체로 좋은 편이었는데, 이는 Oh(2008)의 치매노인 주 부양자의 건강상태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 입원노인 주 부양자의 소진감과 부양부담감의 정도는 각각 평균 2.66과 평균 2.71로 약간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Joo(2003)의 노인의 의존성과 부양자의 대처자원이 부양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 주 부양자들이 느끼는 소진감과 부양부담감이 높은 편이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 역시 주 부양자의 담당자가 주로 여성인 사실과 유관하리라 생각된다.

연구 대상자의 건강상태, 부양부담감 및 소진감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소진감이 크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부양부담감이 낮고, 소진감이 적을수록 부양부담감이 낮았는데, 이는 Cho(1998)의 연구에서 노인환자를 돌보는 주 간호제공자가 느끼는 부담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건강문제가 초래된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였다.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 정도를 알아 본 Park(2006)의 연구에서도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부양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입원노인을 돌보는 것이 지속적이면서 집중적인 보호, 원조를 제공해야 하므로 상당한 체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입원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은 그 자체가 주 부양자의 건강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건강상의 부담이 증가하면 입원노인을 돌보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부양인 자신의 생활도 황폐하게 만든다. 따라서 부양인 자신을 위하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스트레스 관리방법, 가족 구성원간의 역할분담 방법, 주 부양자 자신의 시간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Park, 2006). 그러므로 주 부양자에 대한 다른 가족들의 지지와 배려로 그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자신만을 위한 여가를 할애해 주는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입원노인 주 부양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과 입원노인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원노인과의 관계에서는 손 자녀인 경우와 며느리에서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 특성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입원노인 주 부양자의 소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과 입원노인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노인과의 관계중에서 사후검증결과 며느리, 손자녀 및 배우자가 다른 관계보다 더 소진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결과를 찾아볼

수 없어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Seo(2001)의 간호사의 소진감에 대한 연구에서는 종교가 소진감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Kwon(2001)의 사회복지사의 소진감에 대한 연구에서는 성별이 소진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Kwon(2001)은 쉽게 소진되는 사람은 감정이입을 잘하고 헌신적, 사람 지향적, 내성적, 강박적이며 민감하여 불안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열성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타인을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경향을 함께 갖고 있다고 하였다. Wright(1976)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책임감이 있으며 인간관계에 더 깊이 관여하는 특성, 즉 간호와 같은 남을 보살피는 자기희생적인 역할 등으로 이타적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성향 때문에 남성보다 소진감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사료된다. 며느리의 소진감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며느리인 경우 입원노인을 간호하는 일 외에

도 가사일과 자녀교육 등의 일로 인한 업무량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입원노인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과 교육 정도, 입원노인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 정도에서는 사후검증결과 고졸이하가 대졸이상보다 부양부담감이 더 높았는데, 이는 Lee(1995)의 연구에서 학력이 낮은 경우가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심하였다는 결과와 Park(2006)의 연구에서 주 부양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양부담이 낮은 결과와 일치하였다. 관계에서 사후검증결과 며느리가 배우자, 친척 및 자녀보다 부양부담감을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혈연관계가 있는 아들과 딸보다는 의무감에서 부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양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한 Cho(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성별과 입원노인과의 관계가 입원노인 주 부양자의 건강상태, 소진감, 부양부담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상태가 나쁘고, 소진감, 부양부담감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여성들의 역할이 노인환자를 보살피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가사업무까지 포함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입원노인과의 관계에서는 며느리가 공통적으로 건강상태가 나쁘며, 소진감과 부양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혈연관계가 아닌 며느리가 의무감으로 입원노인을 간호하는 데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입원노인의 주 부양자가 여성이며 며느리인 경우 그들의 건강상태, 소진감 및 부양부담감을 함께 고려한 적절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입원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건강상태, 소진감 및 부양부담감의 정도를 파악하여 노인환자가족 간호에 도움이 되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 소재 2개 대학병원에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을 돌보고 있는 주 부양자를 대상으로, 2007년 3월 1일부터 2007년 4월 10일까지 자료 수집을 하였다. 연구도구로 건강상태 측정도구는 Brodman 등(1945)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1965년에 Nam이 한국인에게 맞게 수정, 보완한 CMI

간이 건강조사표를, 소진감 측정도구는 Pines 등(1981)이 개발하고 Pik(1983)이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를, 부양부담감 측정도구는 Jeong(1998)이 수정·보완하여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에 따라 기술적 통계, Pearson Correlation, T-test, ANOVA와 Scheffe test로 처리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원환자 주 부양자의 건강상태는 대체로 좋은 편이며, 소진감과 부양부담감은 약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원환자 주 부양자의 건강상태와 소진감, 건강상태와 부양부담감, 소진감과 부양부담감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입원환자 주 부양자의 일반적 특성별 건강상태와 소진감에 대한 차이는 성별과 관계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양부담감에 대한 차이는 성별, 교육 및 관계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입원노인을 돌보는 주 부양자는 주로 여성으로 대부분이 높은 소진감 및 부양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주 부양자인 여성을 위한 가사분담 및 가족 간의 이해, 지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사는 임상에서 노인의 특성과 가족 특성 및 주 부양자의 건강상태, 소진감, 부양부담감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간호중재를 계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첫째, 입원노인 주 부양자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 소진감이나 부양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족차원을 벗어난 범국민적 차원의 지지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입원노인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감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Amirkhanyan, A., & D. Wolf (2003). Caregiver stress and noncaregiver stress: Exploring the pathways of psychiatric morbidity. *The Gerontologist*, 43(6), 817-827.
- Brodman, K., Weider, A., Mittelman, B., Wechsler, D., & Wolff, H. G. (1945). The cornell service index: A method for quickly assaying personality and psychosomatic disturbances in men and in the armed forces. *War Medicine*, 7, 209.
- Brody, E. M. (1985). Patterns of parent-care when adult daughters work and when they do no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Scientific Meeting of the Gerontological Society 38th New Orleans LA, November, 41, 22-26.*
- Chenoweth, B., & Spenser, B. (1986). Dementia: The experience of family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26(3), 267-172.
- Cho, B. H. (1998).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in family functioning of stroke patients. *Korean Academic Society of Rehabilitation Nursing*, 1(1), 1-14.
- Cho, N. O. (1996). *Study of the dementia patient's family experience and their nursing nee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Jeong, S. J. (1998). *Study on the family member's stress due to the support for the ag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Seoul.
- Joo, B. A. (2003). *The relationship among dependencies of care recipients and coping resourc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family caregiv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city, Jeonbuk.
- Kim, Y. J., & Lee, P. S. (1999). A study on the burdens and depressive reactions on families who cared for patients suffering from senile dementi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4), 766-779.
- Kwon, S. D. (2001). *Status of burnout in social workers at social welfare centers in government subsidized housing throughout Seoul,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G. O., & Lee, M. J. (2000). A study on assessment of long - term care needs in the frail elderly.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5, 255-275.
- Lee, H. J. (2006). The effect of caregiver's burden for the dementia elderly by the use of daycare center. *Journal of The Korean*

- Gerontological Society*, 26(2), 329-346.
- Lee, H. J., & Song, R. Y. (2000). Predictors of the caregivers' health responses and coping strategies most frequently utilized by informal caregivers of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4), 893-904.
- Lee, K. J. (1995). Care needs of elderly with dementia and burden in primary family caregiver.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15(2), 30-51.
-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5). *Report of patient survey*, 20.
- Nam, H. C. (1965). Study of Conel's medical index-the third. *Modern Medi*, 3(4), 471-475.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7). *Statistics of aged*. Seoul: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Oh, H. (2008). *The study on the pattern of health condition, sustenance allowance, and quality of life of the patient family with the senile dement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Park, E. H. (2006). *A study on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s on the level of primary family caregiver burden in caring for dementia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Pik, E. H. (1983). *Relative study of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in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Pines, A. M., Aronson, E., & Kafry, D. (1981). *Burnout from tedium to personal growth*. A Division of MacMillian Publishing Co. Inc., 202-222.
- Pines, A. M., & Kanner, A. D. (1982). Nurses' burnout: Lack of positive condition and presence of negative condition as two independent source or stress. *J.P.N.M.H.S.*, 20-30.
- Rhu, I. Y., & Kim, M. H. (2006). Influencing factors on care burden in the caregivers of demented elderl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8(1), 47-57.
- Seo, M. H., & Oh, G. S. (1993). Study of the burden of patient's family with chronic disea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3(3), 467-485.
- Seo, M. J. (2001). *Burnout and coping type of oncology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Wright, D. (1976). *The psychology for moral behavior, middlesex*. England: Penguin Book Ltd.
- Yang, O. K. (2000). Study on caregiving of dependent elderly.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5, 167-190.
- Abstract -

A Study on the Health Status, Burnout, and Burden of Primary Family Caregivers of the Elderly In-Patients

Kim, Kwuy Bun* · Sung, Jung Min**
Sok, Sohyune R.***

Purpose: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level of health status, burnout, and burden of primary family caregivers of the elderly in-patients,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 among the factors. **Method:** The subjects were a total of 232 primary family caregivers of elderly in-patients at K and E Medical Center, and were surveyed from March 1 to April 10, 2007. Measures were a health status measuring tool based on CMI developed by Brodman et al. (1945), the burnout measuring tool developed by Pines et al. (1981), and the burden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 Charge Nurse, Department of Nursing, Kyung Hee Medical Center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measuring tool revised by Jung, Soo-Jin (1998).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12.0. **Results:** Firstly, the mean of health status was 1.69, which means that they were mostly healthy, and the mean of burnout was 2.66, which means that they were a little burned out. The mean of burden was 2.71, which means that they were a little burdened. Second, there were high correlations between health status and burnout, between health status and burden, and

between burnout and burden.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health status and burnout according to sex and relationship, and in burden according to sex, education level and relationship. **Conclusions:** Nurses need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burnout, and burden of primary family caregivers.

Key words : The Aged, Family, Health, Burnout, Burden